

여수국가산단 ‘탄소중립’ 신산업 메카로 육성한다

오늘 국내 유일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개소 CCUS 인프라·친환경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

여수시가 국내 최대 종합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을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신산업 육성 단지로 전환한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6일 여수미래혁신지구에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를 열고 친환경·저탄소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는 국내 유일 탄소중립형 석유화학 공정 실증 연구시설로 ▲저탄소 고부가 산업공정에 필요한 촉매 개발 ▲CCU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제품 제작지원 ▲탄소중립

대응기술개발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에 CCUS클러스터를 구축해 올해부터 관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CCUS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CCS)과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CCU)로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며, CCUS클러스터는 두 산업의 결합을 목표로 한다.

CCUS클러스터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CCUS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게 ▲C

CS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CCU사업을 위한 CCUS클러스터 구축 ▲CCUS를 통한 그레이수소의 블루수소 전환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는 국가가 직접 용역을 수행해 클러스터 구상과 관련 세부 사업을 담는 작업에 착수한다.

또 석유기반 고탄소 화학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화이트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 리사이클산업을 포함하는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관련 산업분야의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을 집



지난해 11월29일 여수국가산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한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 개소식 현장. (여수시 제공)

적화해 수요와 공급의 전주기 공급망의 안정화 및 기술 자립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특화단지다.

앞서 시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남도와

함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나섰으며, 올 하반기에 특화단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지구 조성 등 관련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

며, 많은 연구기관 유치 등 연구기관 집적화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29일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전남테크노파크 화학산업센터가 개소해 여수국가산단 CCUS클러스터 구축사업,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의 주관 기관으로 향후 지역 화학산업의 발전전략 수립과 중소기업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시장은 “CCUS 클러스터 구축과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을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산업 메카로 육성 할 것”이라며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기



광양시가 지난 4일 중마동 다나소아과외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현판식을 가졌다. (광양시 제공)

광양 '달빛어린이병원' 문 열었다

중마동 다나소아과외원 지정...연중무휴 진료

광양시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중마동 다나소아과외원)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인화 시장, 김복덕 보건소장, 병원 관계자, 협력 약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현판식을 가졌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에도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시는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과 심야(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남에서 두 번째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동네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야간시간대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다나소아과외원은 지난 2일

부터 평일 야간에는 기존 운영 시간을 연장해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진료한다. 지정 기간은 2026년 3월1일까지 2년간이다.

또 진료 후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가까운 중대형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운영한다.

정인화 시장은 “저출산 시대 꼭 필요한 의료정책으로 이번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본격 운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야간, 주말 관계없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 맞춤형 인구정책...합계출산율 '경증'

1.13명...전년비 31.4% ↑

담양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 전남은 0.97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데 반해 담양군 합계출산율은 1.13명을 기록했다. 전년 0.86명 대비 0.27명이

늘어 31.4% 증가했다.

이는 군이 지속 추진해 온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및 임신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가에서 추진 중인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군비로 확대한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큰 호응을 얻으며 출산율 상승

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한 폐교 위기의 작은학교 살리기 특별 프로그램, 초등 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촌형 교육 정책 또한 주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노 군수는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곡성군,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재배면적 기준 0.2ha 이상 완화...사업비 50%

곡성군은 “최근 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는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방법, 설치 기준, 준공 후 보조금 청구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추진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공업체의 제품 홍보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저온저장고는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에 있어 출하 시기 조절과 상품성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군은 올해부터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재배 면적 기준을 0.2ha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1차 대상자로 99㎡ (3평형) 규모의 저온저장고 23동과 33㎡ (10평형) 규모의 저온저장고 2동이 포함됐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지원 한도가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평형 저온저장고에는 600만원, 10평형 저온저장고에는 2천100만원이 지급된다. 군에서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농가들이 원하는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농산물 품질이 향상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후 2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순천시,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

진료재단(평화병원)·금령(주)·개인 10명 수상

순천시는 5일 “최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선 지방세 유공납세자들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 선정된 유공납세자들은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 또는 본점을 둔 납세자 중 법인 5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성실 납세 실적, 과거 포상 이력을 고려,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진료료재단, 금령(주) 2개 법인과 개인 10명이다. 이들에게는 ‘유공납세자’ 인증 명예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금고 금리 우대, 순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 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순천=정기기자

장성,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호응'

장성군은 5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사업’이 고령 운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사업’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이탈 ▲차량 전방추돌 ▲보행자 근접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총 23대로, 1대당 설치비용 5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에 한한다.

오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영업용 개인차량이 1순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운전자 2순위며,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심약자 또는 보호자는 3순위이다. 4 순위는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가 차지한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 설명회

7월 입주 목표...4개 팀 선발 예정

고흥군이 청년 창업농의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대상 선발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모집 설명회를 열어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현황, 입주 희망자 지원 자격, 선발 규모, 임대차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사진)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조성된 임대형 스마트팜은 유리온실 3개 동 (5.76ha)으로 이뤄져 있으며, A동은 토마토, B동은 딸기, C동은 멜론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추고 있는 첨단 영농 시설이다.

고흥군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희망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부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모집 및 선발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입주를 목표로 4개 팀, 12명의 청년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농은 작물 생육에 적합한 온도, 습도 환경 제어, 양액 조절, 병충해 방제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영농 진입과 스마트팜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래 농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의 초기 영농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며, 지역 청년농을 육성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청년농은 7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해 11월부터 수확을 시작, 내년 6월까지 매출액 1억원을 목표로 작물 재배 및 유통에 주력하는 등 스마트팜 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고흥=최복환 기자